

한국화가 김호석 초대전 8월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5월호

‘검은 먹, 한 점’으로 새긴 오월 광주

회화 60여점·아카이브 20여점 전시
역사화·인물화·가족화 등 4개 섹션
“광주정신은 ‘정의’... 예술표현 고민”

“세상을 떠난 자들과 살아 있는 자들이 연대하는 것, 그것은 광주이니까 가능합니다. 정의감에서 우러나온 광주의 고귀한 정신은 영원하고, 더불어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갔습니다. 광주는 한국 민주화 역사의 보루입니다.”

한국화가 김호석 화백은 ‘광주 정신’의 핵심 단어로 ‘정의’를 꼽았다. “죽을 줄 알면서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던

1980년의 그들”을 기억하는 작가는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해 낼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고 있는 ‘김호석:검은 먹, 한 점’은 오월 광주를 새롭게 해석한 신작을 비롯해 그의 작품 세계 전체를 조망하는 60여점의 회화와 아카이브 20여점을 만나는 대규모 초대전이다.

작가는 무등산의 아계 넓음을 기억한다고 했다. 한문을 가르쳐줬던 할아버지와 소쇄원 등 정자를 답사한 추억도 있다. “내가 밭 밟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슬픔이 배어 있는지 알아야한다”는 생각을 늘 했다.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는 역사화, 인물화, 가족화 등 그의 대표작들이 모두 나왔다.

‘이 땅의 흔적’에서는 스물 한 살 때의 작품으로 기존 한국화가 다루지 않은, 서구화된 밤풍경을 그린 ‘아파트’ (1979)를 비롯해 1980년대 독재에 짓눌린 민중의 모습을 그린 ‘굴비’ 등을 만난다.

‘우리 시대의 초상 섹션’에서는 교과서에도 실린 정약용의 초상화를 비롯해 황희 등 역사적 인물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김화백은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가족화다. IMF 즈음 24시간 관찰이 가능했던 가족들의 ‘눈 떨림’과 ‘입술의 떨림’까지 세밀하게 포착해 그린 수록화는 많은 이들이 자신들을 대입해 보며 가족의 사랑을 떠올리게 했다. 노쇠한 대로 노쇠해 버린 어머니에게 밥을 먹이는 며느리의 모습을 담은 작품 ‘정신의 생’이나, 여름날의 풍경을 담은 ‘수박씨를 빨고 싶은 날’ 등이 대표적이다.

김 작가는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과 역사를 관통하는 건 무엇일까 늘 고민했고, 그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광주시립미술관 초대전에서 만날 수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사’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호석 작가.



‘정신의 생’

‘한 걸음 나아가’ 섹션에서 만나는 작품들은 강렬하다. 현장의 작가는 사진기자이자, 취재기자라고 생각하며 객관적 진실을 그리려 애를 썼고 강경대 열사 장례식 등의 역사화를 통해 구현했다. ‘광주민주화운동사’ (2000)를 비롯해 오월 광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 ‘모기는 동족의 피를 먹지 않는다’, ‘표적’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섹션 ‘필묵의 울림’ 섹션에서는 몽골과 유라시아 등을 여행하며 자연의 순환과 생명과 죽음에 대한 사유를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떨어진 꽃, 들판의 풀, 대나무 등을 통해 치유와 성찰을 이야기한다.

이번 전시에 아카이빙 자료에서 눈에 띄는 게 있다. 장요세파(트라피스트 봉쇄수녀원) 수녀가 그의 작품 한 점 한 점에 대해 쓴 글을 모아 펴낸 책 ‘모자라고도 넘치는 고요’, ‘수녀님, 서툰 그림 읽기’다. 그는 김화백의 작품에서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자세인 ‘통찰력’을 발견했고, 거기서 감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화백은 이번 시립미술관 전시와 함께 5·18 기록관에서 광주의 큰 어른 이강 선생을 주제로 한 전시 ‘이강의 길에 피어오른 하얀 빛 광주의 꽃’전도 열었다. 1970년대 김남주 시인과 함께 반유신,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온 인물로 전국 최초로 유신체제를 비판한 ‘함성지 사건’의 주인공인 이 선생을 화폭에 담은 김화백은 그에게 ‘훈장’을 씌우는 대신, 그의 삶을 빌어 광주정신을 이야기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연남



나눔은 문화와 세상을 바꾼다 희망 전과 카투니스트 황중환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되는 ‘나눔’이라는 단어는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사회가 아무리 각박해졌다해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나눔 소식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남’ 5월호는 ‘나눔은 문화와 세상을 바꾼다’를 주제로 특집을 준비했다. 시민과 기업, 예술인이 함께하는 광주형 문화메세나 ‘문화동행’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영암 출신 재일교포 사업가 하정웅(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씨가 지난 1993년부터 무상으로 기증한 2536점의 ‘하정웅 컬렉션’은 민주·평화·인권을 지향하는 광주의 도시품격을 높였다. 또한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이타적인 ‘나눔’과 ‘기부’에 대해 살펴본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희망을 전하는 카투니스트 황중환 작가다. “웃는 얼굴을 그리 때 내도 웃는 얼굴이 되어 그리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황중환 교수(조선대 미술대학 애니메이션학과)의 카툰은 따뜻하다. 또 울림을 남긴다.

어릴 적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꿈꿨던 그는 펜과 붓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거린다. 최근 광주 롯데갤러리 및 담양 담빛창고에서 초대전을 한 황중환 작가의 ‘행복 바이어스’ 작품세계에 대해 들었다.

예향이 찾아가는 ‘클릭, 문화현장’은 ACC 아시아문화박물관이다.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를 품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문화시설이다. 특히 그중에서도 지난 2021년 오픈이브러리

파크를 리모델링해 재개관한 아시아문화박물관은 도심 속 문화쉼터로 떠오르고 있다. 근래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로 각광 받고 있는 북 라운지와 도서관 등 아시아 문화박물관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따뜻한 봄날, 무안의 오월 신록을 만나러 ‘남도 오디세이 美路美路’를 떠난다.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은 민선 8기 무안군의 지역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새로운 도시브랜드(BI)다. 6월에는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가 확정된 무안갯벌에서 황토갯벌축제가 펼쳐진다. 황토갯벌과 흰쌀 농개, 백련(白蓮), 노을길(낙지공원), 영산강 자전거길...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무안의 오월 신록과 멋·흥·맛을 찾아 나선다. 무안 활동가 나눔 고구마와 양파, 양배추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맛보는 건 덤이다.

신록의 5월, 옛 선현들의 지혜가 넉넉히 깃들여 있는 서원을 찾아 한 자락의 명절을 배우는 것도 좋을 시기다. 연중 시리즈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은 서예 류성룡 선생을 배향한 안동 병산서원을 찾았다. 풍광 좋은 곳에 자리한 서원은 휴식과 여가라는 목적도 담겨 있다. 반잡한 도심을 벗어나 산수가 좋은 서원을 찾아 마음의 묵은 때도 벗고 선현의 귀한 가르침 한 두 절 담아오는 것도 좋다.

지면으로 해외문화현장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 ‘해외문화기행’은 예술여행의 핫플로 떠오르는 덴마크 코펜하겐 국립미술관으로 향한다. 애호가들은 ‘빛과 고독의 화가’ 빌헬름 함메르소이 명작에 감탄하고 앙리 마티스 컬렉션에 환호한다. 이외에도 야구배트 대신 마이크를 쥐고 돌아온 그라운드 ‘슈퍼소닉’ 이대형과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어반플레이, 4일~10월29일 ACC 민주평화교류원

앤서니 브라운은 영국의 유명 동화 작가이자 어린이 책의 노벨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주인공이다. 기발한 상상력과 간결하면서도 유머러스한 게 그의 작품이 지닌 특징이다.

특히 세밀하면서도 이색적인 그림은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창의성을 키우는 세이프 게임을 보급해왔으며 이를 매개로 한 미술 연필을 가진 꼬마 곰 시리즈를 출간하기도 했다.

앤서니 브라운의 일러스트레이션 원화와 영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어반플레이는 오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매주 월요일 휴관)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전을 ACC 민주평화교류원에서 연다.

전시장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의 130여 점의 일러스트레이션 작품과 국내외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만든 영상, 미디어 아트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 2016년 20만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최다관객상을 받은 ‘앤서니 브라운전’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데 의미

가 있다. 일종의 명작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무엇보다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묘미다. 현실 문제에 대한 풍자를 기발하게 표현한 ‘리틀 부티’, 초현실적이고 다양한 상징이 깃든 작품들이 있는 ‘겨울 속으로’, 아빠의 무한한 재능을 그린 ‘우리 아빠가 최고야’ 등이 마련돼 있다.

또한 그의 동화 중 인기 주인공인 윌리의 이야기가 있는 ‘꿈꾸는 윌리’, 미술연필을 쥔 꼬마 곰과 3D 미디어 아트 체험이 가능한 ‘미술 연필’, 원화 전시와 뮤지컬 쇼케이스로 꾸며지는 ‘리틀 프리다’, 최신작을 열람할 수 있는 ‘행복 도서관’ 등 주제에 따라 다채롭게 구성된다.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있어 앤서니 브라운의 모든 그림책을 읽을 수 있고 세이프 게임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화, 목, 금, 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며 수, 토는 오전 10시~오후 8시.

어반플레이 기획팀장은 “이번 전시는 책과 예술 체



‘꿈꾸는 윌리’

험이 이루어진 대규모 테마 전시로 환상적인 영상과 움직이는 조형물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운 가족 형태 모색 ‘콜로키움’ 열린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6월 29일부터 4차례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다변화하고 있다. 어떤 형태를 보편적인 가족의 모습이라 정의할 지 규정하기 어렵다. 가족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는데 새로운 가족 형태의 수용 여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새로운 가족 형태를 모색하는 콜로키움이 열린다.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원장 정미라)은 6월 29일부터 매주 목요일(오후 4시·인문대 1호관 313호 강의실) 4차례 가족의 형태를 모색하는 콜로키움을 연다. 이번 콜로키움은 가족구성권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주제는 ‘새로운 유대와 연결을 모색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는 6월 29일과 7월 6일에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 저자인 김순남 강사가 강연에 나선다. 7월 13일에는 비혼을 주제로 나기 강사가, 7월 20일에는 젠더 이분법과 관련해 나영정(타리) 강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콜로키움은 사전 신청 후 무료로 참가 가능하다. 인문학 연구원은 “가족 커뮤니티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인문학 연구와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물과 관념과 정서의 언어들

장흥 출신 이남근 시인 ‘벽 속의 그리움’ 펴내

“사라지고 흘러간다 고맙고 애뜻하다. 진주가 되지 못한 상처 스쳐가는 단상들, 달그락달그락 여쭙잖다. 몸부림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꿈꾼다”

장흥 출신 이남근 시인(조선대 영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네 번째 시집 ‘벽 속의 그리움’ (시와 사람)을 펴냈다.

모두 80여 편이 실린 작품집은 기발한 시적 정서를 표현한 시들을 담고 있다.

“여리고 매끈해서 노신초사하다/ 어린 동심이 살짝만 만져도/ 파르르 땀나// 상흔마저 질려 버렸던 기억을 안고/ 문명이 오가는 길에서// 순박한 의지/ 하늘을 포용하는 너// 한여름 별결계 화상 입으며/ 견디는 화려한 상처의 꽃다발”(중략) // 상



처가 아들이 가는 일상엔 /은하수 건너는 지혜와 / 신의 벽찬 눈물이 배어 있으니”

위 시 ‘길’가 배롱나무는 여름에 보게되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과 꽃, 상황을 단상과도 같은 언어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백수인 시인은 “사물과 사물, 사물과 관념, 관념과 관념의 언어들을 매우 참신하고 자유롭게 결합함으로써 새롭고 기발한 정서를 함유하도록 언어를 직조하는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표현한다.

“여리고 매끈해서 노신초사하다/ 어린 동심이 살짝만 만져도/ 파르르 땀나// 상흔마저 질려 버렸던 기억을 안고/ 문명이 오가는 길에서// 순박한 의지/ 하늘을 포용하는 너// 한여름 별결계 화상 입으며/ 견디는 화려한 상처의 꽃다발”(중략) // 상

배롱나무를 조점화한 작품이다. 배롱나무 붉은 꽃을 ‘화려한 상처의 꽃다발’이라 표현하고 있는 데서 보듯, 사물과 언어 사이에는 낮은 시적 정서가 흐른다.

또한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은하수 건너는 지혜’, ‘신의 벽찬 눈물’로 비유하는 것처럼, 화자는 언어의 융합을 매개로 새로운 느낌을 선사하고 있다.

한편 이남근 시인은 조선대에서 대학원장 등을 비롯해 대한언어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98년 ‘문학21’을 통해 등단했으며 시집 ‘바람이 그림자 되어’, ‘의문의 달’, ‘벽의 그리움’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